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연구단체명		울산지역경제연구회		
연구과제명		불안정한 주거정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서민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정적인 지원대책 연구		
연구목적		○ 울산시 소상공인, 지역 주거환경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기업계 등과 소통, 서민경제 맞춤 정책 개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경제 환경 변화 모색		
연구결과 요약		○ 간담회: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영세업체 금융지원 확대 건의 등 ○ 토론회: 소규모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트램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도시 재생 뉴딜 정책 활용 방안 제시		
연구 활동비	연도	2024년 7월~12월	2025년 1월~12월	2026년 1월~5월
	지원액	4,500,000원	4,500,000원	연구활동비 미신청
	집행액	90,000원	4,090,000원	
	잔액	4,410,000원	410,000원	
기타사항				

붙임: 연구결과 세부내용 1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회장 천미경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연구결과 세부내용(울산지역경제연구회)****① 연구단체 활동 내역**

연도	종 류	개최일시	주요내용	비고
2026년 1월~5월			연구활동 미추진	
2025년 1월~12월	토론회	'25.10.15.	울산 중심가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24 7월~12월	간담회	'24.10.18.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②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해당사항 없음”**③ 조례 제·개정 시(또는 정책 제안 시) 연구활동 내용 반영 사항**

○ 관련 조례명(또는 정책명) :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

○ 주요 반영(제안) 사항

- 조례 개정: 소상공인 보험료 확대 및 공모사업 지원 강화
- 서면 질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진행중, 추가적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

○ 추진단계 : 반영 및 제안 완료

○ 반영된 조례 시행일 : 2026.04.02.

④ 의원연구단체 활동 내역

※ 24.10.18. 간담회 : 24.12.31. 기 결과 보고

○ 연구결과(토론회) 세부내용

- 2025년 울산지역경제연구회 토론회(25.10.15.)

· 일시/장소 : 2025. 10. 15. / 1층 시민홀

· 주 제 : 울산 중심가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울산신문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005면 정치

“울산 트램 노선 따라 보행 친화적 중심가 조성해야”

시의회 '울산지역경제연구회' 토론회
유동인구 증가로 청년창업 등 시너지 기대

울산 도시의 활력 회복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한 '보행 친화적 중심가'를 조성하고, 소규모 창업생태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제시됐다.

울산지역경제연구회(회장 천미경 의원)는 15일 오전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중심가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연구단체 회원인 시의원들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울산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는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울산이 직면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울산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상권을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첫 주제로 다뤄진 소규모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울산의 전통적인 현 산업 구조로는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경제연구회는 15일 오전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중심가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제공

특히 청년층이 정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중심가로를 구축하는 것이 상권 재생은 물론, 울산의 인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 및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확보된 정부 지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울산만의 특화된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 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후속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현안은 도시성장축으로서의 트램 역할과 중심가로의 연계 발전 전략이다.

발제자인 정현욱 박사는 트램 도입이 도시 공간 재편의 기회를 강조하며, 트램 노선을 따라 상업, 문화, 창업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생활경제권이 형성되는 국내외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중심가로는 보행친화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재편될 때, 트램이 어끄는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시민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울산시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울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ksh31@